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스승의 주일 메시지



## 인재를 키워야

교회에 재산 목록이 있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안디옥 교회는 귀중한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한 분만 있어도 힘이 될 터인데 구제와 봉사에 뛰어난 바나바를 비롯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귀족 출신 마나엔과 루기오와 같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울(바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이 교회가 가진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금식기도 할 만큼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 일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연합 정신과 그리스도께 거짓 없는 충성과 헌신이 있었으니 가히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서 유능한 인재나 찾고 있지 말고, 나 자신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인재가 되든지, 아니면 자라나는 인재를 키우고 가꿀 줄 아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 2020 흥해작전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 기간 : 6. 6.(토) - 6. 25.(목), 주일은 제외함
- 새벽기도회 : 6.6.(토) - 6.17.(수) 새벽 5시 30분-6시
- 특별새벽기도회 : 6.18.(목) - 6.25.(목) 새벽 5시-6시

- 주제 성구 : 예루살렘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일어설지어다(사 51:17)
- 주제 찬송 : 357장(주 믿는 사람 일어나)

## 공 동 기도 문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비읍나니,

1.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이웃 교회들이 원하는대로 행할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따라 행하겠사오니,  
(편의주의에 안주하려는 유혹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2. 성령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겠사오니,  
(세속에 민감한 인기 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요, 성경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마케팅에 물든 성장주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4.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하세 가득한 눈가림만 하는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5.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될 때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히 맞서는 살아 운동력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소서!)
6. 교회의 주인되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며,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므로 질적 현신을 회복하겠사오니,  
(목자 잃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56회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세미나 "새로운 안디옥 대한민국" 5월 18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원로목사)은 제56회 학술원공개신학세미나를 "새로운 안디옥 대한민국-현대사회의 선교와 전도" 주제로 5월 18일(월) 오후 2시부터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교육선교(이규민 교수 : 장신대신대원 석좌교수), 사회복지선교(이승렬 박사 :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명목상 신자전도(남정우 박사 : 하늘담은교회 담임) 세 강의 후 이종윤, 이광순, 이승렬, 남정우 박사가 종합토론을 한다.

많은 참여로 선교와 전도에 유익한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성준·김성영 김우균·김연화 김영선·권택숙  
안선광·고영숙 이영민 성준모 황보주자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기금 계좌와 다름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 예) 흥길동십일조
- 흥길동선교
- 흥길동주일
- 흥길동비전
- 흥길동지원교회
- 흥길동특별

## 2020 성경암송대회

2020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지난 해 목회정책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7(주)
  - \* 암송범위: 시편 119편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0(토)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 나가 있는 청년이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제56회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세미나

**주제 : 새로운 안디옥 대한민국 - 현대사회의 선교와 전도 -**

주님의 영광을 믿는다. 새로운 안디옥 대한민국! 이 ऐतिहासिक 행진은 아메리칸선학대학의 초대학장이었던 마삼탄(Samuel H. McFadyen) 박사에서 그의 선친 마르살리(Marshall Austin McFadyen) 현상이의 영장(영장)으로 제1년 100년(안디옥) 그리스도의 제1년(안디옥)에 한 걸음씩 걸었던 영장(영장)을 읽고, 그 영장(영장)을 100년(안디옥)에 보충(보충)하여 한국교회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의 과제(과제)를 규정(규정)하고 무대(무대)를 제시(제시)하고 소개(소개)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성령의 강한 임재로 국가적 위계운동이 있었으며 세계에서 선교사들 두 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인 대(대)를 가장 많이 보냈으며, 한국인이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고, 그들이 사는 곳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선교를 감당(감당)할 것이 바로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그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화하는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영감과 영혼의 교향곡(교향곡)이 흐르던 안디옥(안디옥)의 영혼(영혼)과 바울(바울)의 영혼(영혼)이 한 걸음씩 걸었던 영장(영장)을 읽고, 그 영장(영장)을 100년(안디옥)에 보충(보충)하여 한국교회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의 과제(과제)를 규정(규정)하고 무대(무대)를 제시(제시)하고 소개(소개)합니다.

이제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세계선교의 원리와 중심지가 한국교회로 전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 년 전 세계선교사대회의 주제 중 교육선교와 사회복지선교, 명목상 신자전도를 포함 한국기독교학술원 제 56회 학술원공개신학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학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시도록 새로운 안디옥 대한민국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회(영회)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서울 종로구 대곡로 3길 20)

**제1강 교육선교**

이규민 박사

- 교육학(교육철학)
- 교육신학(교육신학)
- 교육사(교육사)
- 교육정책(교육정책)
- 교육개혁(교육개혁)
- 교육혁신(교육혁신)
- 교육미래(교육미래)

**제2강 사회복지선교**

이승렬 박사

- 사회복지(사회복지)
-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연구(사회복지연구)
- 사회복지교육(사회복지교육)
- 사회복지봉사(사회복지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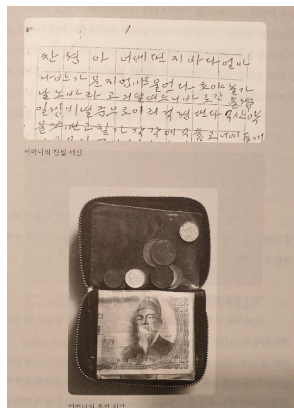
**제3강 명목상 신자전도**

남정우 박사

- 명목상신자전도(명목상신자전도)
- 명목상신자전도의 원리와 방법(명목상신자전도의 원리와 방법)
- 명목상신자전도의 실천(명목상신자전도의 실천)
- 명목상신자전도의 연구(명목상신자전도의 연구)
- 명목상신자전도의 교육(명목상신자전도의 교육)
- 명목상신자전도의 평가(명목상신자전도의 평가)

Panel Discussion : 이종윤 이규민 이승렬 남정우

한국기독교학술원 | 이사장 이종윤 | 원장 이종윤 | 서울 종로구 김삼동로 30 한국기독교학술원 910호 | 02-264-0376-7 | Fax: 02-242-5889 | http://www.inst.ac / Email:inst@inst.ac



위) 박찬성 집사님의 어머니  
아래) 어머니의 낡은 지갑

달빛마저 쫄쫄 얼어붙은 동짓 달 밤에, 눈 쌓인 무성 댁 돌담길을 돌아 마실 가셨다가 잠든 막내인 나를 업고 귀갓길 서두르시는 엄마, 무릎 밑으로 파고드는 살에는 듯한 칼바람에도 어린 것 추울세라 연신 담요를 치키시며 내 딛는 발소리. 그 뾰드뾰드드득하는 눈 밟는 소리에 선잠을 깬 막내의 눈에 언 듯 비친 그림자 하나,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하얀 눈 위에 너무도 선명하고 새까만 그림자 하나. 엄동설한 어머니 등에 업혀 눈만 빼꼼히 내밀고 어머니 어깨 너머로 내려다보던 그 흑백 동영상의 이미지는 나의 뇌리에 또렷이 스캔되어 저장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어머니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이다.

서울 유학 중이던 맏아들이 혼자 객지에서 고생한다고 가족이 영주에서 서울 마포에 집을 사서 올라왔던 것이 1950년 봄이다. 하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스스로 불구덩이를 찾아 올라온 격이었으니 한 집안의 가정사로 볼 때 이런 불운이 또 있을까? 설상가상으로 전쟁 중에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혼이 반쯤 나간 채 부모님은 허둥지둥 남은 가족을 이끌고 피난 행렬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서울 집을 장만하느라 고향의 전답은 반으로 축나 버렸다. 가을이면 농자금 값으랴 자식들 학자금 마련하랴 추수한 곡식을 장에 내다 팔고 나면 대가족이 한 해 동안 먹고 살 식량을 걱정해야 했던 것이 부농이라 불리는 집안의 실상이었으니 살림의 지혜를 짜내야 하는 일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다.

대학 4학년 졸업반 시절, 한국산업은행 입학 시험을 하루 앞둔 1972년 겨울에 고향에서 '모친위독'이라는 네 글자의 전보가 날아들었다. 큰 수술을 받으신 후였지만 예상 밖이었다. 혹 어머니를 못 보면 어쩌나 싶은 초조함 속에 시험



을 마치고 중앙선 하행 열차를 탔다. 밤늦은 시각에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다. 막내가 왔노라고 귀에 대고 몇 번을 소리치며 어머니를 깨웠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셨다. 부축을 받고 일어나 앉아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 왔니..." 라고 인사하시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후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누우셨고

나도 곁에 같이 누웠다. 너무 피곤해서였던지 나는 이내 잠이 들고 말았다. 왜 좀 더 깨어 있지 못했을까? 새벽 즈음이었는지 어머니는 조용히 홀로 영면하셨다. 바로 옆을 지키고 있었으면서도 마지막 가시는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죄스러움은 그 후로 오랫동안 가지지 않았다. 늘 자식들을 걱정하시면서도 항상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던 어머니. 환갑 무렵 갑자기 병환이 너무 깊어진 걸 알고 뒤늦게서야 수술을 받으셨지만 이미 너무 쇠약해진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자식으로서 어찌 그렇게 무신경할 수 있었는지 너무 한이 되고 죄스러웠다.

100원짜리 지폐 2장에 동전 몇 닢이 들어있던 어머니의 지갑은 지금까지 정성껏 보관하고 있다. 100원짜리 지폐가 흑 상할까 손수 만드신 비닐 봉투에 고이 넣고 다니셨으니 어떻게 그 돈을 쓰거나 하셨을까? 나는 가끔 어머니의 손때 묻은 지갑을 꺼내어 만져보면서 작은 돈까지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셨던 무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보곤 한다. 가만히 눈을 감고 어머니 생전에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떠올리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작은 금니가 살짝 드러나 보이던 어머니의 환한 미소 띤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어머니의 겨울이 길고 추웠기 때문일까?



5월을 나타내는 많은 말들이 있다. 계절로는 "계절의 왕"이라 하며, 꽃으로 말하면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며, 어린이들은 "어린이 세상"이라고도 하고, 교회 절기로는 "꽃 주일" "아버지 주일" "스승의 주일" "성령강림 주일"로 꼭 차 있다.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내는 "가정은 심장이다", 장남은 "가정은 실천하는 곳이다", 장녀는 "가정은 나누는 곳이다", 차남은 "가정은 쉬는 곳이다"고 한다.

이런 여러 말들을 나누면서 정말 감사를 드렸다. 각기 가정을 생각함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였다. 모두가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그 속에서 송고한 하나

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진정한 가정은 따뜻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유희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한마디의 말은 자녀를 따뜻하게 함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아빠 엄마에게 자녀가 드리는 말 한마디는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다. 심장은 따뜻함의 상징이요, 믿음은 실천이 따라야 하니 그 실천장이 바로 가정이요,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곳이 가정이니 바로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여긴다.

기도속에 있는 그 따뜻함, 그 회개와 눈물, 그 감격, 그 기쁨이 가정에서 다시 살아 날 때, 우리 모든 가정은 따뜻한 5월에 활짝 핀 장미처럼 화사함과 향기롭음과 아름다움이 넘치리라고 생각한다.

# 호산나대학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특별상과 상금 200만원 수상

지난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최한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호산나대학은 1만 4,000여 건의 공모작 중 특별상인 '같이 의가치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뉴스의 분별력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활용을 권장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호산나대학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으로 '시사따라잡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문인 뉴스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과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의 삶과 경험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도 사회구성원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한 뉴스일기는 2019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이 '시사따라잡기' 수업시간에 신문으로 뉴스를 읽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결과물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우수사례집으로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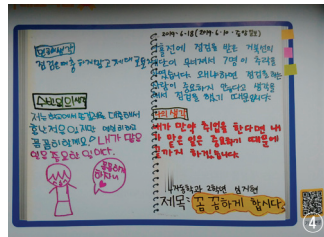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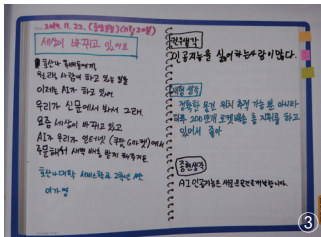
박미영 지도교수는 "호산나대학 학생들과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뉴스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도전정신을 기르고 '뉴스읽기 습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을 가지길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에 참여한 학생들도 시사따라잡기 수업을 통해 "시사 상식이 늘어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에 잘 모르던 알찬 정보를 깨닫게 되었다", "열심히 뉴스를 봐야겠다", "친구들과 다양한 기사 거리를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모전 수상은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을 위해 설립된 호산나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호산나대학이 학생들에게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다양하고 과감한 교육실험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운동에 영감과 자극을 주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①② 시상식 장면  
③④ 공모전에 제출한 학생들 뉴스일기  
⑤ 시사따라잡기 수업 장면



### 동정

이종운 원로목사는 지난 14일(목) 한국 군선교연합회 57회 총회석상에서 한국군선교신학회 창립하고, 지난20여년간 매년 군선교신학 논문집을 발간하여 전세계 유일의 한국군선교 신학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 비전2020운동 청년사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으로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5.18(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 전교인 성경읽기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18일	월	대하 31-33		마 14-18	
5월19일	화	대하 34-36		마 19-22	
5월20일	수	스 1-2		마 23-26	
5월21일	목	스 3-7		마 27-28, 막 1-2	
5월22일	금	스 8-10		막 3-6	
5월23일	토	느 1-4		막 7-10	
5월24일	주일	느 5-7		막 11-16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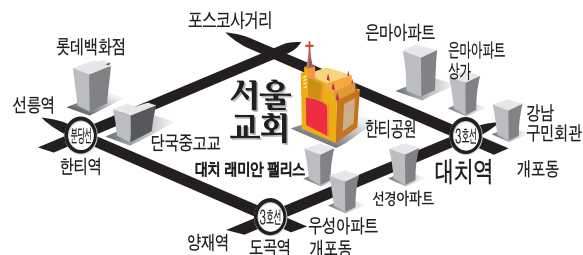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 믿음의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와 활동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2. 파송된 선교사들을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남아 있는 모든 송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